

“저 버스가 맞나?” 전세버스 투입 첫날 시민들 우왕좌왕

市, 파업 장기화에 비상수송책 강화
순환01·봉선37 각 2·4대 투입·운영
스마트폰 앱 등에 도착 정보 안뜨고
승·하차 문 동일·하차벨 없어 불편

“봉선37 버스 맞나요? 타도 되는 건가요?”
광주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9일째인 16일 오전 8시에 남구 봉선삼익아파트(남)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이들 10여명의 표정은 다소 초조해 보였다.
버스 파업에 따른 배차 지연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게 되면서 대부분은 “평소보다 일찍 나오는 중”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럼에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건 배차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버스에 평소보다 탑승객이 몰려 택시 등 다른 이동 수단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시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세버스 6대를 투입, 운행한다. 투입 노선은 파업으로 운행 횟수가 가장 많이 준 순환01과 봉선37로, 각각 2대와 4대를 배치한다.
봉선삼익아파트 정류장에서 봉선37 버스를 기다리던 이들은 대체로 전세버스가 운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정류장 전광판 어디에도 도착 정보가 나오지 않자 “오는 게 맞나”며 불안한 표정으로 도로를 연신 바라봤다.
오전 8시12분께 전면 유리창에 ‘비상수송차량 봉선37번’이라는 안내문이 붙은 관광버스가 정류장 앞에 멈춰선 뒤에도 시민들은 운전 기사에게 “37번 맞냐”고 연이어 확인했다.
이후 버스에 탑승한 시민들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빈 자리를 찾아 앉았다.
전세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도착하기 전 맨 앞자리의 안내원은 승객들에게 하차 준비를 안내했고, 멈춰선 후에는 또다른 승객들의 승차를 도왔다.
다른 전세버스에서 안내원들은 운행 노선 속지가 서투른 기사들에게 가야할 길을 안내하기도

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치 덕에 전세버스는 큰 문제 없이 운영됐지만, 시내버스와 구조가 다른 데서 발생하는 혼잡스러운 상황은 운행 내내 연출됐다.
시내버스는 승·하차 문이 각각 다른 반면, 전세버스는 문이 하나 뿐이어서 목적지에서 내리려는 시민들과 버스를 타려는 승객들이 뒤엉켰다.
이를 막기 위해 안내원들은 멈춰선 정류소에서 탑승하려는 시민들을 향해 “내린 후 올라와 달라”고 안내했지만, 혼잡을 막진 역부족이었다.
또 ‘하차벨’이 없다 보니 탑승객들은 스스로 “멈춰달라”고 외쳐야 했고, 버스 노선표와 현재 지나는 곳이 어딘지 알려주는 안내 방송이 없어 일부 승객들은 내릴 곳을 지나치기도 했다.

전세버스를 시내버스처럼 운행한 기사들 역시 운행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버스 기사는 “노선을 익혀 길은 어렵지 않은데, 차량의 길이가 시내버스보다 길어 도로가 좁은 곳을 지나거나 회전하는 게 익숙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18일부터 파업 장기화로 대체 인력의 피로도 문제 등이 커지면서 20개 노선에 60대의 전세버스를 순차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투입 노선과 분배 대수는 17일 오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세버스 운영 대수를 유연하게 조정해 수송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정 기자



‘사랑의 제빵’ 나눔 16일 광주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에서 열린 ‘사랑의 제빵’ 나눔 행사에서 운임2동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적십자 자원봉사단원들이 관내 경로당 9개소에 전달할 빵을 만들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갑질 논란’ 남구 간부공무원 불문경고…노조 ‘반발’

市 인사위 “처분에 이를 정도 아니다”
‘직장 내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광주 남구 간부 공무원에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지자 남구 노조가 “숨방망이·면죄부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남구가 징계를 요청한 A 동장에 대해 최근 사유는 인정되지만 처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불문경고 조치를 내렸다.
불문경고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공무원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는 않아 법적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기록 카드에 해당 내용이 기재돼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시 징계위원회에서 맡는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A 동장의 처분도 시 징계위원회가 담당했다.
앞서 A 동장은 지난해 7·12월 과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여직원 4명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비하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인사조처된 뒤 조사를 받아왔다.
광주시 인사위의 결정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

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A 동장의 행위는 갑질에 해당한다는 남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징계 사유가 명확한데도 불문경고로 그친 것은 사실상 갑질 행위를 오히려 합리화할 수 있는 면죄부와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갑질을 합리화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후 내부 노동자운영위원회를 열어 후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서형 기자

‘파면’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 해고무효 소송 패소

광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센터장에 대해 내린 파면 처분은 정당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4부(임술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고, 각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징계 양정도 적

정하다.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근무 중 이던 2023년 10월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지시, 근태 불량 등을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파면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민사 소송에 앞서 부당 해고 구제신청도 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 판정을 받았다. /안재영 기자

완도경찰, 70대 어르신 ‘3천만원 돈가방’ 찾아줘

완도경찰이 70대 어르신의 현금 3천만원이 든 가방을 신속하게 되찾아 주인에게 돌려줬다.
16일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완도 청산면에 거주하는 A(75) 할머니가 금융기관에서 만기된 적금 3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부산에 거주하는 아들의 집을 가기 위해 완도읍으로 오는 과정에서 돈이 든 가방을 분실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완도경찰은 할머니가 충격으

로 구체적인 행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이소피싱 등 범죄 연관성 여부를 포함해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다음 날 완도읍 도로변 화분 사이에 놓여 있던 가방을 발견해 회수했다.
완도경찰서는 “앞으로도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 철저한 현장조사와 신속한 대응으로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해남서 단독주택 화재…방화 용의자 사망

해남에서 이웃 주민의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70대가 소사했다.
16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0분께 해남군 북일면 한 단독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약 3시간20분 만인 오전 6시28분께 화재를 완진했다.
불이 난 주택 마당에선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A(7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시신

은 대부분 불에 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주택에 거주하던 50대 부부는 불이 크게 번지기 전 자력으로 대피해 연기 흡입 등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거주민 부부는 경찰에 “평소 A씨와 갈등을 빚어 왔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 갈등이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조사되지 않았다.
경찰은 거주민 부부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해당 화재로 피해 주택이 전소돼 소방 추산 3천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안재영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